

1983 학년도

# 新入生 實態調查研究

姜 志 勇\*

## 〈 目 次 〉

I. 緒 言	5. 資料處理
II. 調査의 方法 및 內容	III. 結果 및 解釋
1. 調査對象	IV. 結 論
2. 調査內容	1. 要 約
3. 調査方法	2. 提 言
4. 調査期間	

## I. 緒 言

學生들의 現況을 보다 正確하게 把握하여 學生指導의 基礎資料를 삼기 위하여 濟州大學校에서 는 매년 入學前 오리엔테이션期間에 學生生活研究所가 新入生 全員을 對象으로 한 實態調査를 實施하여 오고 있으며 '83 學年度에도 新入生 1,885 名 全員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實施하였다.

濟州大學校가 綜合大學으로 昇格된 '82 學年度를 前後하여 급격한 量的인 膨脹을 가져왔으나 이에 따른 既存의 大學施設에 있어서 受容上의 不均衡問題와 아울러 新入生들의 個人差의 深化 즉 學力이나 思考의 水準 그리고 諸般環境與件에서의 多樣性 등의 問題가 부각되고 있으며 또 한 入學過程에서 경험한 葛藤이나 卒業定員制로 인한 心理的 負擔의 增加問題도 계속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狀況에서 大學을 新入生들로 하여금 大學生活에 원만하게 適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効率的으로 指導하고 나가서 大學이 個個人的 完全한 自我實現의 場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調査研究는 이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하기 위하여 新入生들의 一般的 特性和 家

\* 本 研究所 調査研究部長(專任講師)

族關係, 學費事情, 入學動機 및 系列志望實態, 對人關係, 大學生活과 관련된 諸問題와 其他的 態度에 관한 問題등을 分析하였다.

## II. 調查의 方法 및 內容

### 1. 調查對象

1983 學年度 新入生 1,885 名 全員을 對象으로 하였다.

### 2. 調查內容

본 新入生 實態調查는 總 33 個 問項으로 構成된 質問紙를 사용하였는데 그 具體的 調查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一般的 特性

- (1) 年齡構成比
- (2) 出身高等學校
- (3) 入學後의 居住形態
- (4) 宗 教
- (5) 入學前 再修與否
- (6) 兵 事

#### 2) 家 族 關 係

- (1) 父母의 生存與否
- (2) 父母의 教育程度
- (3) 家族의 住所地
- (4) 家族의 住居方式
- (5) 保護者의 職業

#### 3) 學 費 事 情

- (1) 學費調達 方法
- (2) 學費餘裕 程度

#### 4) 入學動機 및 系列志望 實態

- (1) 入學動機
- (2) 專攻選擇의 動機
- (3) 專攻選擇에 影響을 준 사람
- (4) 專攻選擇에 對한 評價
- (5) 專攻選擇에 對한 滿足度
- (6) 專攻學科에 對한 知識程度

5) 對人關係

- (1) 對人關係의 圓滿度
- (2) 親舊의 數
- (3) 願하는 親舊의 類型

6) 大學生活

- (1) 當面問題
- (2)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相談者
- (3) 新入生으로서 알고 싶은 事項
- (4) 大學生活의 注力方向
- (5) 願하는 課外活動 分野
- (6) 教授에 對한 期待
- (7) 大學生活의 目的
- (8) 大學生의 使命
- (9) 現大學生에 對한 批判

7) 卒業後의 計劃

- (1) 卒業後의 計劃
- (2) 職業을 選擇하는데 貴重히 여기는 것

3. 調查方法

入學前 新入生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設問調查 시간을 별도 마련하여 設問調查를 實施하였으며, 즉시 設問紙를 回收하였다. 回收된 設問紙의 數는 新入生 1,885名 중 1,702名으로 90%의 回收率을 보였다.

〈表 - 1〉 大學別 性別 構成比

	남	여	계
인 문 대 학	59(22.7 %)	201(77.3 %)	260
사 회 과 학 대 학	285(70.7 %)	118(29.3 %)	403
사 범 대 학	204(43.6 %)	264(56.4 %)	468
농 과 대 학	196(94.2 %)	12( 5.8 %)	208
해 양 과 학 대 학	344(94.5 %)	20( 5.5 %)	364
야 간 강 좌 부	122(67.0 %)	60(33.0 %)	182
합 계	1,210(64 %)	675(36 %)	1,885

〈表 - 2〉 大學別 設問紙 回收率

	배 부	회 수	회수율 (%)
인 문 대 학	260	218	84 %
사 회 과 학 대 학	403	362	90 %
사 범 대 학	468	443	95 %
농 과 대 학	208	188	90 %
해 양 과 학 대 학	364	316	87 %
야 간 강 좌 부	182	175	96 %
합 계	1,885	1,702	90 %

#### 4. 調 査 期 間

1983 년 2 월 24 일 ~ 26 일 까지

#### 5. 資 料 處 理

수집된 자료인 設問應答紙 1,702 장의 處理는 設問한 問項別로 單科大學別 答項別로, 그 類 度數와 百分率을 算出하여 表作하였다.

### Ⅲ. 結 果 및 解 釋

#### 1. 一 般 的 特 性

(1) 年 齡 構 成 比

年 齡 構 成 比 를 살 펴 보 면 1983 년 3 월 1 일 을 기 준 으 로 만 18 세 가 55.4 % 로 가 장 많 고 다 음 이 만 19 세 로 서 26.2 % 이 며 세 번 째 로 는 만 20 세 로 7.8 % 이 다. 應 答 者 의 절 대 다 수 인 99.4 % 가 만 18 세, 19 세, 20 세 層 에 속 하 고 있 다.

〈表 - 3〉 年 齡 構 成 比

대 학 별 년 령 별	인 문 대 N %	사 회 과 학 대 N %	사 범 대 N %	농 대 N %	해 양 과 학 대 N %	야 간 강 좌 부 N %	합 계 N %
17 세 이 하	2 0.9	1 0.3	2 0.5	3 1.6	3 1.0	3 1.7	14 0.8
만 18 세	161 73.9	200 55.3	28 63.4	91 48.4	166 52.5	44 25.1	943 55.4
만 19 세	42 19.3	10 27.9	109 24.6	60 31.9	105 33.2	29 16.6	446 26.2
만 20 세	5 2.3	27 7.5	33 7.5	20 10.6	29 9.2	19 10.9	133 7.8
만 21 세	2 0.9	9 2.5	3 0.7	9 4.8	7 2.2	7 4.0	37 1.3
만 22 세	1 0.5	3 0.8	5 1.1	2 1.1	4 1.3	9 5.1	24 1.4
만 23 세 이 상	5 2.3	21 5.8	10 2.3	3 1.6	2 0.6	64 2.3	105 6.17

(2) 出 身 高 等 學 校

出 身 高 等 學 校 로 는 道 內 高 等 學 校 로 는 제 일 고 가 196 명 (11.5 %) 으 로 가 장 많 고 그 다 음 이 오 현 고 로 193 명 (11.3 %), 세 번 째 가 중 앙 여 고 137 명 (8.1 %), 신 성 여 고 133 명 (7.8 %), 서 귀 고 132 명 (7.8 %), 제 주 여 고 130 명 (7.6 %), 제 주 농 고 117 명 (6.9 %) 등 의 順 으 로 나 타 났 다. 濟 州 市 所 在 高 等 學 校 出 身 이 전 체 의 53.2 % 으 로 과 반 수 이 상 을 차 지 하 고 있 다. 한 편 道 外 로 는 전 라 남 도 가 28 명 (1.7 %) 으 로 가 장 많 고 그 다 음 이 부 산 으 로 10 명 (0.6 %), 서 울 이 9 명 (0.5 %) 등 의 順 으 로 나 타 났 다. 〈表 - 4〉

(3) 入 學 後 의 居 住 形 태

新 入 生 들 의 居 住 形 태 를 보 면 自 宅 에 서 居 住 하 는 學 生 들 이 全 體 의 54.1 % 로 가 장 많 고 다 음 이 자 처 하 는 학 생 (30.7 %), 친 처 집 에 서 居 住 하 는 學 生 (7.8 %), 하 숙 하 는 학 생 (5.8 %) 등 의 順 이 다. 〈表 - 5〉

(4) 宗 教

新 入 生 들 의 宗 教 別 分 布 는 〈表 - 6〉 에 提 示 된 바 와 같 다. 우 선 全 體 의 으 로 宗 教 有 無 를 보 면 宗 教 를 갖 고 있 는 學 生 의 比 率 이 57.2 % 이 고 宗 教 가 없 는 학 생 은 41.9 % 로 서 과 반 수 이 상 의 학

〈表 - 4〉 出身高等學校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오현고	11 5.1	50 13.8	56 12.6	19 10.1	40 12.7	17 9.7	193 11.3
제일고	10 4.6	45 12.4	55 12.4	17 9.0	59 18.7	10 5.7	196 11.5
신성여고	41 18.8	31 8.6	55 12.4	-	1 0.3	5 2.9	133 7.8
제주여고	48 22.0	26 7.2	42 9.5	2 1.1	3 1.0	9 5.1	130 7.6
증양여고	36 16.5	21 5.8	68 15.4	1 0.5	3 1.0	8 4.6	137 8.1
서귀여고	27 12.4	16 4.4	37 8.4	3 1.6	9 2.9	1 0.6	93 5.5
대정고	-	11 3.0	7 1.6	5 2.7	11 3.5	1 0.6	35 2.1
남주고	4 1.8	11 3.0	4 0.9	9 4.8	13 4.1	2 1.1	43 2.5
제주여상	2 0.9	-	7 1.6	1 0.5	1 0.3	13 7.4	24 1.4
서귀여상	2 0.9	2 0.6	4 0.9	-	-	-	8 0.5
고산상고	3 1.4	2 0.6	1 0.5	-	3 1.0	2 1.1	11 0.7
세화고	3 1.4	11 3.0	6 1.4	8 4.3	5 1.6	6 3.4	39 2.3
한림공고	1 0.5	16 4.4	4 0.9	12 6.4	31 9.8	7 4.0	71 4.2
증문고	1 0.5	4 1.1	-	1 0.5	-	-	6 0.4
한림여실	1 0.5	2 0.6	2 0.5	-	-	1 0.6	6 0.4
검정	-	11 3.0	2 0.5	-	-	-	13 0.8
방송통신	-	1 0.3	-	1 0.5	1 0.3	9 5.1	12 0.7
애월상고	1 0.5	2 0.6	7 1.6	1 0.5	6 1.9	11 6.3	28 1.7
제주농고	1 0.5	8 2.2	11 2.5	50 26.6	42 13.3	5 2.9	117 6.9
표선상고	1 0.5	1 0.3	1 0.5	-	-	2 1.1	5 0.3
서귀고	4 1.8	38 10.5	29 6.6	29 15.4	30 9.5	2 1.1	132 7.8
대정여고	12 5.5	5 6.4	9 2.0	-	-	-	26 1.5
제주상고	-	29 8.0	7 1.6	1 0.5	8 2.5	44 25.1	89 5.2
성산수고	-	2 0.6	1 0.2	3 1.6	17 5.4	1 0.6	24 1.4
서귀농고	-	2 0.6	-	10 5.3	1 0.3	1 0.6	14 0.8
합덕고	-	6 1.7	-	-	1 0.3	1 0.6	8 0.5

전 남	-	7 1.9	3 0.7	4 2.1	9 2.9	5 2.9	28 1.7
전 북	-	-	3 0.7	-	1 0.3	-	4 0.2
경 남	-	1 0.3	1 0.2	-	1 0.3	2 1.1	5 0.3
경 북	1 0.5	-	1 0.2	3 1.6	1 0.3	-	6 0.4
충 남	-	-	3 0.6	-	1 0.3	-	4 0.2
충 북	-	-	-	-	1 0.3	2 1.1	3 0.2
서 울	-	-	2 0.5	3 1.6	2 0.6	2 1.1	9 0.5
경 기	-	-	-	-	-	1 0.6	1 0.1
부 산	-	-	6 1.4	-	3 1.0	1 0.6	10 0.6
강 원	-	-	-	-	4 1.3	-	4 0.2

(이하 무응답자 제외)

<表 - 5> 入學後의 居住形態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자 가	119 54.6	180 49.7	250 56.4	97 51.6	175 55.4	100 57.1	921 54.1
하 숙	22 10.1	21 5.8	21 4.7	13 6.9	19 6.0	3 1.7	99 5.8
친 처	14 6.4	28 7.7	31 7.0	16 8.5	32 10.1	11 6.3	132 7.8
자 취	61 28.0	123 34.0	137 30.9	60 31.9	86 27.3	55 31.4	522 30.7
기 타	2 0.9	10 2.8	4 0.9	2 1.0	4 1.3	6 3.4	28 1.7

<表 - 6> 宗 教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불 교	77 35.3	116 32.0	122 27.5	64 34.0	113 35.8	51 29.1	543 31.9
기 독 교	29 13.3	54 14.9	83 18.7	25 13.0	43 13.6	24 13.7	258 15.2
천 주 교	40 18.4	30 8.3	44 9.9	5 2.7	9 2.9	11 6.3	139 8.2
기타종교	17 7.8	6 1.7	1 0.2	5 2.7	3 1.0	1 0.6	33 1.9
없 다	49 22.5	156 43.1	193 43.6	84 44.7	143 45.3	88 50.3	713 41.9

생들이 宗教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宗教중에서도 불교를 믿는다고 應答한 新入生이 31.9%로써 가장 많고 기독교가 15.2%, 천주교가 8.2%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宗教가 없다고 應答한 學生들은 大學別로 그 比率을 살펴보면 야간 강좌부가 50.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해양과학대 (45.3%), 농과대 (44.7%), 사범대 (43.6%), 사회과학대 (43.1%), 인문대 (22.5%) 등의 順이다. 이러한 事實은 女學生이 相對的으로 많은 인문대와 사범대의 新入生들이 他大學의 新入生을 보다 無宗教者의 比率이 적다는 것을 말해 준다.

(5) 大學入學前 再修 여부

大學에 入學하기 前에 再修를 안했다가 78.7%로 절대적으로 많으나 1年동안 再修를 했다가 16.5%, 2년이상은 4.3%로 나타났다. 新入生中 약 20%가 入學하기 前에 再修 및 三修의 經驗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大學別로 보면은 女學生數가 相對的으로 많은 인문대 사범대가 再修를 안했다가 93.1%, 84.2%로 가장 높고 男學生數가 相對的으로 많은 농과대와 해양과학대가 각각 74.5%, 76.0%를 他 大學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한다면 新入生中 女學生들은 大學에 入學하기 前에 再修하지 않는 편이나 男學生인 경우는 비교적 많은 學生들이 再修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表-7>

<表-7> 入學前 再修與否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안 했다	203 93.1	287 79.3	373 84.2	140 74.5	240 76.0	97 55.4	1,340 78.7
1년	13 6.0	16 16.9	58 13.1	43 22.9	65 20.6	40 22.9	280 16.5
2년이상	2 0.9	14 3.9	12 2.7	5 2.7	8 2.5	32 18.3	73 4.3

(6) 兵 事

新入生 中 대부분의 學生들이 (86.5%) 병역미필이며, 병역을 필한 學生들로 전체의 10.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家 族 關 係

(1) 父母의 生存與否

父母生存與否의 물음에 있어서 父母 모두 生存하다고 應答한 學生은 全體 應答者의 87.5%이고 다음은 親母만 生存(7.4%) 親父만 生存(2.0%) 등의 順이며 부·모 모두 사망도 1.4%



〈表-8〉 兵 事 問 題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학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병역미필	41 89.1	227 89.7	181 91.9	168 94.4	282 94.6	54 41.5	953 86.5
병역면제	1 2.2	6 2.4	1 0.5	3 1.7	9 3.0	17 13.1	37 3.4
병역필	4 8.7	20 7.9	15 7.6	7 3.9	7 2.4	59 45.4	112 10.2

〈表-9〉 父母의 生存與否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학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부·모생존	195 89.4	319 88.1	389 87.8	164 87.2	283 89.6	140 80.0	1,490 87.5
부만생존	3 0.9	6 1.7	10 2.3	3 1.6	6 1.9	6 3.4	34 2.0
모만생존	15 6.9	28 7.7	31 7.0	14 7.4	18 5.7	20 11.4	126 7.4
부·모사망	2 0.9	4 1.1	5 1.1	4 2.1	4 1.3	5 2.9	24 1.4
(생존하나 이혼/맞벌기)	3 0.9	5 1.4	8 1.8	3 1.6	5 1.6	4 2.3	28 1.6

나 차지하고 있다. 全體적으로 봐서 결혼가족의 출신은 약 12.5% 정도로 나타나 있다.

(2) 父母의 教育程度

먼저 父의 教育水準을 살펴보면 父親이 高等學校의 教育을 받았다고 應答한 學生이 3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中學教育을 받았다가 29.8%, 國民學校가 16.8%이며 大學教育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大學別로 보르면 父親이 大學教育을 받았다고 한 學生들의 比率을 보면 社會과학大가 14.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인문大(14.2%), 사범大(12.2%), 해양과학大(10.8%)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다음 母의 教育水準을 보면 中學教育을 받은 母가 37.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國民學校程度의 教育을 받은 母가 29.1%이며 무학도 18.6%나 되고 있는 반면 大學教育을 받은 경우는 불과 1.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 10〉 父의 教育程度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대졸이상	31 14.2	52 14.4	54 12.2	18 9.6	34 10.8	17 9.7	206 12.1
고졸	90 41.3	117 32.3	160 36.1	51 27.1	110 34.8	43 24.6	571 33.6
중졸	59 27.1	112 30.9	137 30.9	61 32.5	92 29.1	46 26.3	507 29.8
한학	17 7.8	58 16.0	58 13.1	40 21.3	61 19.3	52 29.7	286 16.8
무학	1 0.5	16 4.4	26 5.9	12 6.4	7 2.2	16 9.1	78 4.6

〈表 - 11〉 母의 教育程度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대졸이상	2 0.9	14 3.9	2 0.5	2 1.1	3 1.0	1 0.6	24 1.4
고졸	26 11.9	59 16.3	32 7.2	18 9.6	30 9.5	11 6.3	176 10.3
중졸	107 49.1	132 36.5	169 38.2	61 32.3	113 35.8	50 28.6	632 37.1
국졸	48 22.0	90 24.9	138 31.2	63 33.5	86 27.2	70 40.0	495 29.1
무학	16 7.4	65 18.0	86 19.4	37 19.7	70 22.2	43 24.6	317 18.6

(3) 家族의 住所地

新入生들의 家族住所地는 제주시가 가장 많은 42.2%이고 다음이 서귀포시 15.3%이며, 그 외 道內 읍·면 지역에서는 애월읍이 6.4%, 남원읍이 5.1% 대정읍이 4.8%등의 順이다. 한편 道外로는 전남이 1.3%, 경남 0.4%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교의 新入生 절대 다수가 濟州道出身者들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중 제주시와 서귀포시 出身者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家族의 住居方式

新入生들의 家族住居方式을 보면 자가 85.0%로 가장 높고 전세가 11.4%, 월세 3.2%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 - 12〉 家族의 住所地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제주시	83 38.1	155 45.1	200 45.1	64 34.0	124 39.2	93 53.1	719 42.2
서귀포시	42 19.3	58 16.0	75 16.9	39 20.7	44 13.9	3 1.7	261 15.3
애월읍	17 7.8	15 4.1	21 4.7	16 8.5	16 5.1	24 13.7	109 6.4
한림읍	5 2.3	8 2.2	12 2.7	7 3.7	13 4.1	6 3.4	51 3.0
대정읍	13 6.0	24 6.6	23 5.2	5 2.7	14 4.4	3 1.7	82 4.8
남원읍	13 6.0	26 7.2	23 5.2	12 6.4	12 3.8	9 5.1	86 5.1
표선	8 3.7	6 1.7	5 1.1	3 1.6	9 2.9	2 1.1	33 1.9
구좌	6 2.8	18 2.2	15 3.4	9 4.8	15 4.8	-	72 4.2
성산	11 5.1	4 1.1	13 2.9	8 4.3	19 6.0	7 4.0	62 3.6
안덕	5 2.3	14 3.9	8 1.8	4 2.1	9 2.9	5 2.9	45 2.6
조천	4 1.8	12 3.3	13 2.9	7 3.7	12 3.8	3 1.7	51 3.0
한경	8 3.7	8 2.2	14 3.2	6 3.2	8 2.5	7 4.0	51 3.0
서울	-	1 0.3	1 0.2	1 0.5	-	-	3 0.2
부산	-	1 0.28	-	-	1 0.3	-	2 0.1
전남	-	7 1.9	3 0.7	4 2.1	5 1.6	3 1.7	22 1.3
전북	-	-	3 0.7	-	-	-	3 0.2
경남	-	-	5 1.1	-	-	1 0.6	6 0.4
경북	-	-	-	2 1.1	-	-	2 0.1
충남	-	-	2 0.5	-	1 0.3	-	3 0.2
충북	-	-	1 0.2	-	-	2 1.1	3 0.2
경기	-	1 0.3	-	-	1 0.3	2 1.1	4 0.2
강원	-	-	-	-	4 1.3	-	4 0.2
추자	-	1 0.3	1 0.2	-	-	-	2 0.1

〈表 - 13〉 家族의 住居方式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자 가	185 84.9	311 85.9	361 81.5	175 93.1	276 87.3	138 78.9	1,466 85.0
전 세	32 14.9	45 12.4	60 13.5	8 4.3	28 8.9	21 12.0	194 11.4
월 세	1 0.5	5 1.4	21 4.7	4 2.1	10 3.2	13 7.4	54 3.2

(5) 保護者의 職業

保護者의 職業分布를 살펴보면 農業이 52.7%으로 단연 많고 그다음이 상업(13.4%), 공무원(6.9%), 교사(4.5%)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社會階層의 地位가 上流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의사를 비롯한 專門職業從事者는 전체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 14〉 保護者의 職業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농업	95 43.6	208 57.5	219 49.4	114 60.6	163 51.6	98 56.0	897 52.7
교육공무원	13 6.0	15 4.1	29 6.6	11 58.5	8 2.5	1 0.6	77 4.5
공무원	18 8.3	20 5.5	38 8.6	8 4.3	22 7.0	12 6.9	118 6.9
상업	19 8.7	62 17.1	50 11.3	28 14.9	42 13.3	27 15.4	228 13.4
회사원	11 5.1	8 2.2	30 6.8	1 0.5	11 3.5	5 2.9	66 3.9
운수	6 2.8	3 0.8	15 3.4	-	10 3.2	1 0.6	35 2.1
건축업	4 1.8	6 1.7	1 0.2	-	1 0.3	1 0.6	13 0.8
통역관	1 0.5	-	-	-	-	-	1 0.1
공업	3 1.4	5 1.4	3 0.7	2 1.1	5 1.6	1 0.6	19 1.1
의사	1 0.5	-	1 0.2	-	1 0.3	-	3 0.2
금융	3 1.2	-	-	-	-	-	3 0.2
인쇄	1 0.5	-	1 0.2	-	1 0.3	-	3 0.2

선원	1	-	1	-	-	-	2
	0.5		0.2				0.1
종교인	1	-	1	-	-	-	2
	0.5		0.2				0.1
노동	-	1	5	-	2	1	9
		0.3	1.1		0.6	0.6	0.5
부동산	-	1	-	-	1	-	2
		0.3			0.3		0.1
여관	-	3	-	-	-	-	3
		0.8					0.2
수산업	-	2	9	1	14	-	26
		0.6	2.0	0.5	4.4		1.5
임업	-	-	1	-	-	-	1
			2.0				0.1
방송인	1	-	-	2	-	-	3
	0.5			1.1			0.2
축산업	1	-	-	1	1	1	4
	0.5			0.5	0.3	0.6	0.2
해운업	1	-	-	-	-	-	1
	0.5						0.1
양계	1	-	-	-	-	-	1
	0.5						0.1
약사	-	-	-	-	1	-	1
					0.3		0.1
양봉	1	-	1	-	-	-	2
	0.5		0.2				0.1
부직	2	22	26	17	13	19	99
	0.9	6.1	5.9	9.0	4.1	10.9	5.8
기타	34	6	12	3	20	8	83
	15.6	1.7	2.7	1.6	6.3	4.6	4.9

### 3. 學費事情

#### (1) 學費調達方法

學費調達方法에 대한 反應을 보면 新入生の 75.0%가 父母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장학금이 8.6%, 부업 7.2%, 형제나 친척 4.8%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學費를 父母의 도움으로 調達하는 新入生들의 比率을 大學別로 보면은 인문大(83.0%), 해양과학大(82.6%), 농과大(80.9%), 사회과학大(80.4%), 사범大(77.4%)이며 야간강좌부인 경우는 2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學費餘裕程度

“學費事情은 어떠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보통이다」라고 應答한 學生이 가장 많으며(41.9%), 다소 곤란하다(34.1%), 여유있다(10.0%), 아주 곤란하다(7.1%), 충분한 여유있다(6.8%)이다. 한편 學費事情이 「충분히 여유 있다」고 한 應答者들의 比率을 大學別로 보면 인문大(18.8%), 농과大(6.9%), 사범大(5.6%), 사회과학大(5.3%), 해양과학大(3.8%), 등의 順으로 밝혀졌다.

〈表- 15〉 學費調達方法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부 모	181 83.0	291 80.4	343 77.4	152 80.9	261 82.6	49 28.0	1,277 75.0
형제 (친척)	16 7.3	25 6.9	23 5.2	8 4.3	7 2.2	2 1.1	81 4.8
자 기 부 업	11 5.1	9 2.5	17 3.8	1 0.5	4 1.3	80 45.7	122 7.2
용 자	3 1.4	10 2.8	16 3.6	12 6.4	8 2.5	11 6.3	60 3.5
장 학 금	7 3.2	26 7.2	41 9.3	14 7.5	33 10.4	26 14.9	147 8.6
기 타	-	1 0.3	3 0.7	1 0.5	3 1.0	7 4.0	15 0.9

〈表- 16〉 學費의 餘裕程度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N %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충분한여유	41 18.8	19 5.3	25 5.6	13 6.9	12 3.8	6 3.4	116 6.8
다 소 여 유	39 17.9	39 10.8	33 7.5	14 7.5	35 11.1	10 5.7	170 10.0
보 통	85 39.0	156 43.1	185 41.8	100 53.2	130 41.1	57 32.6	713 41.9
다 소 곤 란	39 17.9	125 34.5	169 38.2	51 27.1	121 38.3	75 42.9	580 34.1
아 주 곤 란	14 6.4	23 6.4	30 6.8	10 5.3	17 5.4	26 14.9	120 7.1

#### 4. 入學動機 및 系列志望實態

新入生들의 경우 入學動機와 專攻選擇은 大學發展과 學校生活의 適應뿐만 아니라 장차 社會的 進出問題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入學과 專攻을 選擇하게 된 動機와 그에 대한 滿足度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意義가 있다.

##### (1) 入學動機

新入生들이 本校入學의 主된 動機를 알아보면 「입학가능성」이 43.3%로 가장 많고 다음이 「등록금이 싸다」 36.4%, 「지방의 명문대」와 「졸업후 사회적 지위 확보용이」가 각각 7.2%를 차지하고 있다.

大學別로 보면은 「입학가능성」은 해양과학대(58.5%), 인문대(54.6%), 농과대와 사회과학대가 각각 49.5%로 높은 反應을 나타냈으나 사범대는 26.9%로 가장 낮은 反應을 보인 반면 「등록금이 싸다」는 사범대가 54.2%로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고 다음이 야간강좌부(46.3%), 인문대(35.3%), 사회과학대(32.6%), 농과대(23.4%), 해양과학대(19.0%)의 順으로 나타났다. 농과대와 해양과학대는 항목에서는 낮은 反應을 나타냈다.

「지방의 명문대」는 농과대와 야간강좌부가 12.6%로 겨우 10% 이상의 反應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대는 전부 10%미만의 낮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인문대인 경우는 1%도 안되는 反應을 나타냈다.

<表-17> 入學動機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 체 N %
등록금이 싸다	77 35.3	118 32.6	240 54.2	44 23.4	60 19.0	81 46.3	620 36.4
졸업후 사회적 지위 확보용이	13 6.0	19 5.3	42 9.5	16 8.5	28 8.9	5 2.9	123 7.2
입학가능성	119 54.6	179 49.5	119 26.9	93 49.5	185 58.5	42 24.0	737 43.3
지방의 명문대	2 0.9	34 9.4	23 5.2	23 12.2	19 6.0	22 12.6	123 7.2
기 타	7 3.2	12 3.3	19 4.3	12 6.4	24 7.6	25 14.3	99 5.8

(2) 專攻選擇의 動機

專攻을 選擇하게 된 動機는 「직업전망」이 47.7%로 가장 높고 다음이 「학문적 취미」가 34.3%, 「입학가능성」이 11.2%, 「인격도야」 3.8%, 「기타」가 3.1%의 順으로 나타났다.

大學別로 보면은 「직업전망」은 사회과학대(56.4%)가, 「학문적 흥미」는 예체능 계열이 있는 사범대(49.2%)가 「입학가능성」은 농과대(24.5%)가 각각 제일 높은 反應을 나타냈다.

<表-18> 專攻選擇의 動機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 체 N %
직업전망	105 48.2	204 56.4	162 36.6	77 41.0	173 54.8	90 51.4	811 47.7
학문적 흥미	85 37.2	102 28.2	218 49.2	48 25.5	74 23.4	60 34.3	583 34.3
입학가능성	25 11.5	31 8.6	31 7.0	46 24.5	50 15.8	8 4.6	191 11.2
인격도야	4 1.8	9 2.5	19 4.3	13 6.9	5 1.6	14 8.0	64 3.8
기 타	3 1.4	16 4.4	13 2.9	4 2.1	14 4.4	3 1.7	53 3.1

(3) 專攻選擇에 影響을 준 사람

專攻을 選擇할 때 가장 크게 影響을 미친 사람은 누구냐는 물음에 本人이 決定해서 選擇했다고 應答한 學生이 57.5%로 가장 많다. 그리고 부·모 형제의 影響을 받은 學生은 14.0%이고 高교담임의 경우는 12.9% 「사회적 추세에 따라」가 7.3%, 「선배」3.2%, 「친우」가 1.6%의 順으로 나타났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靑少年들의 意思決定過程에 있어서 친구들의 影響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한 人間의 人生을 좌우하는 專攻學科의 選擇인 경우는 친구들의 影響은 극히 미미한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은 「本人이 決定」은 야간강좌부(80.6%)와 농과대(62.2%)가 높은 反應을 보여 주었으며 「부·모 形제」는 사범대(19.6%)가 제일 높은 反應을 나타냈다. 「사회적 추세에 따라」는 인문대(13.3%)와 사회과학대(11.6%)가 비교적 높은 反應을 나타냈다.

<表-19> 專攻選擇에 影響을 준 사람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부 모 형 제	30 13.8	44 12.2	87 19.6	28 14.9	40 12.7	10 5.7	239 14.0
고 교 담 임	44 20.2	47 13.0	57 12.9	24 12.8	36 11.4	12 6.9	220 12.9
실 배	1 0.5	14 3.9	18 4.1	8 4.3	14 4.4	-	55 3.2
친 구	1 0.5	6 1.7	8 1.8	2 1.1	10 3.2	-	27 1.6
사회적추세에따라	29 13.3	42 11.6	14 3.2	4 2.1	28 8.9	8 4.6	125 7.3
본 인	108 49.5	197 54.4	247 55.8	117 62.2	172 5.4	141 80.6	982 57.7
기 타	5 2.3	12 3.3	12 2.7	5 2.7	16 5.1	4 2.3	54 3.2

(4) 專攻選擇에 대한 評價

新入生들의 專攻選擇에 대한 評價에 있어서 專攻選擇이 「잘 되었다」고 應答한 學生의 比率을 과반수가 훨씬 넘는 62.9%이고 「잘못 되었다」고 한 學生은 불과 3.0% 밖에 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라는 中立的인 立場을 밝힌 學生은 33.7%나 되고 있다. 이를 大學別로 보면은 「專攻選擇이 잘 되었다」는 야간강좌(74.3%), 사범대(72.9%), 사회과학대(67.1%), 농과대(55.9%), 해양과학대(52.9%), 인문대(47.3%) 등의 順이다.



< 表-20 > 專攻選擇에 대한 評價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잘 되었다	103 47.3	243 67.1	323 72.9	105 55.9	167 52.9	130 74.3	1,071 62.9
그저 그렇다	112 51.4	102 28.2	109 24.6	72 38.3	136 43.0	42 24.0	573 33.7
잘 못 되었다	3 1.4	13 3.6	11 2.5	10 5.3	11 3.5	3 1.7	51 3.0

(5) 專攻에 대한 滿足度

新入生들의 選擇한 專攻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滿足하느냐는 질문에 「다소 만족」 4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그저 그렇다」 26.7%, 「아주 만족」 21.7%, 「다소 불만」 4.4%, 「아주 불만」 0.9%의 順이다. 大學別로는 「아주 만족」은 야간강좌부(38.9%), 사범대(25.8%)사회과학대(23.8%), 농과대(14.9%), 해양과학대(14.2%), 인문대(12.4%) 등의 順이다.

< 表-21 > 專攻에 대한 滿足度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아주 만족	27 12.4	86 23.8	115 25.8	28 14.9	45 14.2	68 38.9	369 21.7
다소 만족	114 52.3	165 45.6	211 47.6	86 45.7	136 43.0	73 41.7	785 46.1
그저 그렇다	61 28.0	93 25.7	96 21.7	62 33.0	113 35.8	30 17.1	455 26.7
다소 불만	15 6.9	13 3.6	20 4.5	8 4.3	15 4.8	4 2.3	75 4.4
아주 불만	1 0.5	5 1.4	1 0.2	4 2.1	4 1.3	-	15 0.9

(6) 專攻學科에 對한 知識程度

新入生들이 專攻學科를 選擇할 때 專攻學科에 對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강 안다」가 48.3%, 다음이 「잘 모른다」 39.1%, 「잘 안다」 7.1%, 「전혀 모른다」 5.3%의 順으로 나타나 전체 新入生중 55.4%가 專攻學科에 對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나머지 약 44.4%에 달하는 新入生들은 專攻學科에 對해서 잘 모르면서 專攻學科를 選擇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22〉 專攻學科에 對한 知識程度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잘 안 다	33 15.1	15 4.1	27 6.1	13 6.9	18 5.5	15 8.6	121 7.1
대 강 안 다	84 38.5	175 48.3	238 53.7	94 50.0	138 43.7	93 53.1	822 48.3
잘 모 른 다	93 42.7	154 42.5	160 36.1	70 37.2	127 40.2	61 34.9	655 39.1
전 혀 모 른 다	8 3.7	18 5.0	16 3.6	11 5.9	31 9.8	6 3.4	90 5.3

## 5. 對人 關係

### (1) 對人關係의 圓滿度

新入生들이 對人關係의 圓滿도를 보면 新入生中 80.8%가 對人關係에 있어서 아주 원만하거나 별 곤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간 어색하다」가 16.5%, 「어색한 점이 많다」는 1.7%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23〉 對人關係의 圓滿度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아주 원만함	43 19.7	88 24.3	120 27.1	62 33.0	89 28.2	41 23.4	443 26.0
별 곤란 없음	130 59.6	203 56.1	255 57.6	82 43.6	156 49.4	106 60.6	932 54.8
약간 어색함	30 13.8	60 16.6	62 14.0	43 22.9	60 19.0	26 14.9	281 16.5
어색한점 많음	5 2.3	5 1.4	6 1.4	1 0.5	9 2.9	2 1.1	28 1.7

### (2) 親舊의 數

新入生들의 親舊의 數는 「몇몇 있다」가 76.4%, 「없는 편」이 9.3%, 「많다」가 7.5%, 「앞으로 사귄예정」이 5.4%, 「친구 필요성이 없다」가 0.7%의 順으로 나타나 新入生の 83.9%가 적어도 친구 몇몇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願하는 親舊의 類型

新入生들이 願하는 親舊의 類型은 「마음의 친구」가 62.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생관을

같이 할 친구」 18.2%, 「학문적인 친구」 14.6%, 「직업면에서의 친구」 3.8%의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제항목별로 보면은 「학문적인 친구」는 인문대(26.2%), 사범대(16.0%), 사회과학대의(13.3%) 順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면에서의 친구」는 인문대(10.1%), 사회과학대(3.6%), 해양과학대(2.3%)의 順이며 「마음의 친구」는 농과대(70.2%), 해양과학대(60.8%), 사범대(62.8%)의 順이고, 「인생관을 같이 할 친구」는 야간강좌부(30.9%), 사회과학대(21.0%), 사범대(18.7%)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 24〉 親舊의 數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많다	50 22.9	17 4.7	20 4.5	15 8.0	18 5.7	8 4.6	128 7.5
몇몇 있다	129 59.2	279 77.1	360 81.3	135 71.8	254 80.4	144 82.3	1,301 76.4
없는 편	32 14.7	33 9.1	37 8.4	18 9.6	24 7.6	15 8.6	159 9.3
앞으로 사귄 예정	6 2.8	24 6.6	23 5.2	19 10.1	14 4.4	6 3.4	92 5.4
친구 필요성 없음	1 0.5	3 0.8	3 0.7	1 0.5	1 0.3	2 1.1	11 0.7

〈表- 25〉 願하는 親舊類型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학문적인 친구	57 26.2	48 13.3	71 16.0	20 10.6	32 10.1	21 12.0	249 14.6
직업면에서의 친구	22 10.1	13 3.6	11 2.5	3 1.6	11 3.5	4 2.3	64 3.8
마음의 친구	124 56.9	219 60.5	278 62.8	132 70.2	215 68.0	96 54.9	1,064 62.5
인생관을 같이 할 친구	15 6.9	76 21.0	83 18.7	29 15.4	52 16.5	54 30.9	309 18.2

## 6. 大學生活

### (1) 當面問題

新入生들이 현재 當面하고 있는 큰 문제는 ① 학업문제(28.9%) ② 학자금 문제(20.7%) ③ 장래 진로문제(16.1%) ④ 인간관계(8.8%) ⑤ 성격문제(8.1%) ⑥ 건강문제(6.6%) ⑦ 가정 및 가족문제(4.7%) ⑧ 이성문제(1.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大學別로 보으면 「학업문제」인 경우는 인문대(31.2%), 농과대(30.3%)의 順이며 「학자금 문제」는 야간강좌부(29.7%), 사범대(22.6%), 인문대(21.6%)의 順이고 「장래진로문제」인 경우는 농과대(21.3%), 야간강좌부(18.3%), 해양과학대(17.4%)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26〉 當 面 問 題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 체 N %
건 강 문 제	3 1.4	28 7.7	24 5.4	14 7.5	27 8.5	9 5.1	105 6.6
학 자 금 문 제	47 21.6	71 19.6	100 22.6	20 10.6	63 19.9	52 29.7	353 20.7
장 래 진 로 문 제	36 16.5	59 16.3	52 11.7	40 21.3	55 17.4	32 18.3	274 16.1
성 격 문 제	9 4.1	35 9.7	36 8.1	25 13.3	26 8.2	6 3.4	137 8.1
인 간 관 계	37 17.0	27 7.5	33 7.5	18 9.6	24 7.6	10 5.7	149 8.8
가 정 및 가 족 문 제	12 5.5	16 4.4	29 6.6	4 2.1	9 2.9	10 5.7	80 4.7
학 업 문 제	68 31.2	96 26.5	138 31.2	57 30.3	89 28.2	44 25.1	492 28.9
이 성 문 제	4 1.8	4 1.1	1 0.2	2 1.1	10 3.2	4 0.2	25 1.5

(2)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의 相談者

앞으로 大學生活을 하면서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겠는가 라는 물음에 가족중 부·모 또는 형제중에서가 39.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친구(28.0%), 교수(15.0%), 선배(12.3%), 기타(4.4%)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27〉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相談者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 체 N %
가 족	130 56.9	141 39.0	179 40.4	64 34.0	112 35.4	53 30.3	679 39.9
친 구	53 24.3	101 27.9	129 29.1	55 29.3	93 29.4	46 26.3	477 28.0
선 배	13 6.0	52 14.4	53 12.0	27 14.4	47 14.9	18 10.3	210 12.3
교 수	19 8.7	51 14.1	66 14.9	29 15.4	43 13.6	48 27.4	256 15.0
기 타	3 1.4	12 3.3	16 3.6	13 2.9	21 6.7	10 5.7	75 4.4

(3) 新入生으로 알고 싶은 事項

新入生으로서 알고 싶은 事項은 「졸업후의 진로」가 52.7%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장학금(17.3%), 과외활동(11.2%), 해외유학(10.3%), 병사문제(3.9%), 교내규칙(3.5%)의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大學別로 보면은 「졸업후의 진로」는 해양과학大(63.0%), 농과大(61.2%), 사회과학大와 야간강좌부(각 61.1%), 사범大(42.0%), 인문大(31.7%)의 順이며 「장학금」은 인문大(30.7%), 사범大(22.6%), 야간강좌부(20.0%), 사회과학大(13.0%), 해양과학大(9.8%), 농과大(8.0%)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28> 新入生으로 알고 싶은 事項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졸업후진로	69 31.7	221 61.1	186 42.0	115 61.2	199 63.0	107 61.1	897 52.7
씨클활동	26 11.9	44 12.2	71 16.0	12 6.4	25 7.9	12 6.9	190 11.2
해외유학	46 21.1	29 8.0	40 9.0	18 9.6	29 9.2	15 8.6	177 10.3
장학금	67 30.7	47 13.0	100 22.6	15 8.0	31 9.8	35 20.0	295 17.3
교내규칙	10 4.6	7 1.9	20 4.5	15 8.0	2 0.6	5 2.9	59 3.5
병사문제	-	10 2.8	16 3.6	13 6.9	26 8.2	1 0.6	66 3.9

(4) 大學生活의 注力方向

新入生들이 大學生活의 注力方向을 알아보면 「학문적 지식의 습득」이 41.8%로 가장 많고 다음이 폭넓은 교양(27.9%), 직업인으로서의 준비(23.8%), 정서적 성숙(4.9%), 기타(1.6%)의 順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은 「학문적 지식의 습득」은 사범大(48.1%), 인문大(44.5%)가 他 大學에 비해 비교적 높은 反應을 나타냈으며 「직업인으로서의 준비」는 해양과학大(29.4%), 야간강좌부(27.4%), 사회과학大(26.8%)의 順으로 나타났으나 사범大인 경우는 14.7%로 낮은 反應을 나타냈다.

(5) 願하는 課外生活分野

新入生은 절대다수인 95.0%가 課外活動에 參加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新入生中 불과 4.2%만이 課外活動에 參加하길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 課外活動이 大學生活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新入生들이 參加하고 싶은 課外活動 分野는 「교양분야」가 42.7%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술

분야(19.5%), 봉사활동(12.1%), 스포츠분야(11.3%), 종교분야(6.9%), 기타(2.5%)의 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은 「학술분야」는 인문대(29.8%), 사범대(23.3%), 사회과학대(20.2%)의 順이나 「봉사활동」은 농과대와 해양과학대가 14.9%로 他 大學에 비해 비교적 높은 反應을 나타냈다.

〈表-29〉 大學生活의 注力方向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 체 N %
학습적 지식의 습득	97 44.5	142 39.2	213 48.1	75 39.9	127 40.2	58 33.1	712 41.8
폭넓은 교양	55 25.2	102 28.2	136 30.7	47 25.0	71 22.5	63 36.0	474 27.9
직업인으로서의준비	56 25.7	97 26.8	65 14.7	46 24.5	93 29.4	48 27.4	405 23.8
정서적 성숙	9 4.1	15 4.1	25 5.6	12 6.4	18 5.7	5 2.9	4 4.9
기 타	1 0.5	6 1.7	4 0.9	8 4.3	7 2.2	1 0.6	27 1.6

〈表-30〉 願하는 課外活動 分野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 체 N %
학 술 분 야	65 29.8	73 20.2	103 23.3	27 14.4	29 9.2	35 20.0	332 19.5
봉 사 활 동	30 13.8	43 11.9	43 9.7	28 14.9	47 14.9	15 8.57	206 12.10
교 양 분 야	105 48.2	149 46.2	176 39.7	75 39.9	137 43.4	85 48.6	727 42.7
종 교 분 야	11 5.1	26 7.2	39 8.8	11 5.9	20 6.3	10 5.7	117 6.9
스 포 츠 분 야	4 1.8	41 11.3	53 11.9	29 15.4	53 16.8	13 7.4	198 11.3
기 타	1 0.5	6 1.7	7 1.6	8 4.3	13 4.1	7 4.0	42 2.5
활동참여안함	2 0.9	20 5.5	20 4.5	7 3.7	13 4.1	10 5.7	72 4.2

(6) 教授에 對한 期待

新入生들은 教授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알아 보았다. 그 結果 總應答者의 54.3%가 「학생에 대한 인간적 지도」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충실된 강의」가 25.2%이며 「자기 專攻分野에 전념」이 13.7%이고 「사회활동」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新入生들이 教授의 役割을 學生들과의 人間的인 理解와 對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大學 人口의 大量化에 따른 大學社會의 非人間化現象의 反映이라고 볼 수 있다.

〈表-31〉 教授에 對한 期待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총 실행 강의	59 27.1	106 29.3	99 22.4	39 20.7	79 25.0	47 26.9	429 25.2
전공분야에 전념	34 15.6	47 13.0	51 11.5	30 16.0	44 14.0	28 16.0	234 13.7
인간적 지도	101 46.3	184 50.8	282 63.7	102 54.3	170 53.8	86 49.1	925 54.3
사회 활동	22 10.1	22 6.1	5 1.1	11 5.9	17 5.4	12 6.9	89 5.2
기타	2 0.9	3 0.8	6 1.4	6 3.2	6 1.9	2 1.1	25 1.5

(7) 大學生活의 目的

新入生들이 大學生活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본 結果 「장래 좋은 職業을 얻는데 필요할 능력을 배양하겠다」가 34.3%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겠다」가 27.8%이고 세번째가 「敎養을 쌓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겠다」로 24.6%, 다음이 「장래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가 11.9%, 기타 1.9%의 順으로 나타났다.

大學別로 보면은 「학문과 지식습득」은 인문大(31.7%), 사범大(31.4%)이 「직업능력 배양」을 해양과학大(40.8%), 농과大(38.8%)이 他大學에 비해 높은 反應을 나타냈다.

〈表-32〉 大學生活의 目的에 對한 評價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학문과 지식습득	69 31.7	98 27.1	139 31.4	46 24.5	79 25.0	42 24.0	473 27.8
직업능력 배양	74 33.9	133 36.7	117 26.4	73 38.8	129 40.8	58 33.1	584 34.3
교양 및 가치관정립	55 25.2	80 22.1	126 28.4	37 19.7	66 20.9	55 31.4	419 24.6
친구	20 9.2	46 12.7	57 12.9	25 13.3	34 10.8	20 11.4	202 11.9
기타	-	5 1.4	4 0.9	7 3.7	8 2.5	-	24 1.4

(8) 大學의 性命

新入生들이 보는 大學生의 使命은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가 32.7%,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가 27.3%, 「학문연마」 25.4%, 「시민의식의 개발」 12.8%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33> 大學生의 使命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학문연마	47 21.6	91 25.1	136 30.7	41 21.8	67 21.2	51 29.1	533 25.4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69 31.7	102 28.2	115 26.0	53 28.2	86 27.2	40 22.9	465 27.3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	59 27.1	109 30.1	137 30.9	69 36.7	124 39.2	59 33.7	557 32.7
시민의식의 개발	42 19.3	54 14.9	48 10.8	19 10.1	31 9.8	24 13.7	218 12.8
기 타	1 0.5	6 1.7	7 1.6	6 3.2	8 2.5	1 0.6	29 1.7

(9) 現大學生에 對한 批判

新入生들이 現大學生에 對한 批判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가장 바람직 하지 못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新入生中 43.7%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경향」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무절제한 생활(22.3%), 학업을 등한시 하는 경향(20.4%), 정의감 부족(10.2%), 기타(3.4%)의 順으로 나타나 大學의 量的인 膨脹과 卒業定員制 등의 問題로 大學生들이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방향으로 점차 기울어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表-34> 現大學生에 對한 批判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체 N %
학업을 등한시하는 경향	67 30.7	76 21.0	84 19.0	32 17.0	61 19.3	27 15.4	347 20.4
정의감 부족	40 18.4	38 10.5	25 5.6	19 10.1	25 7.9	27 15.4	174 10.2
이기적이고 타산적 인 경향	79 36.2	163 45.0	205 46.3	74 39.4	147 46.5	76 43.4	744 43.7
무절제한 생활	31 14.2	74 20.4	113 25.5	52 27.7	73 23.1	37 21.1	380 22.3
기 타	1 0.5	11 3.0	16 3.6	11 5.9	10 3.2	8 4.6	57 3.4



7. 卒業後の計劃

(1) 卒業後の計劃

大學을 卒業하고 난 後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라는 質問에 「취업」이 46.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大學院進學(32.6%) 결정을 하지 못했다(11.9%), 학사편입(4.2%), 해외유학(3.7%)의 順으로 나타났다.

농과대의 新入生(40.0%)들이 大學院進學을 희망하는 比率이 他大學에 비해 높으며, 야간강좌부(58.9%), 해양과학대(55.1%), 사회과학대(51.7%)의 新入生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比率이 높게 나타났다.

인문대인 경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28.4%)가 항목별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表-35> 卒業後の計劃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 체 N %
대학원진학	55 25.2	115 31.8	163 36.8	75 40.0	97 30.0	53 30.0	555 32.6
해외유학	23 10.6	9 2.5	12 2.7	3 1.6	11 3.5	5 2.9	63 3.7
학사편입	27 12.4	9 2.5	21 4.7	8 4.3	3 1.0	4 2.3	72 4.2
취직·사업	42 19.3	187 51.7	210 47.4	80 42.6	174 55.1	103 58.9	796 46.8
미정	62 28.4	38 10.5	37 8.4	22 11.7	34 10.8	10 5.7	203 11.9

(2) 職業을 選擇하는데 貴重히 여기는 것

장차 大學을 卒業한 後 職業을 選擇하게 될 때 選擇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공분야」가 63.9%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회봉사(19.6%), 보수조건(7.6%), 시간적 여유(4.1%), 사회적 명성(2.4%), 가업의 계승(1.6%)의 順으로 나타났다.

<表-36> 職業을 選擇하는데 貴重히 여기는 것

대학별 항목별	인문대 N %	사회과학대 N %	사범대 N %	농과대 N %	해양과학대 N %	야간강좌 N %	전 체 N %
보수조건	26 11.9	24 6.6	19 4.3	17 9.0	28 8.9	15 8.6	129 7.6
전공분야	161 73.9	224 61.9	285 64.3	109 58.0	208 65.8	100 57.1	1,087 63.9

가업계승	1 0.5	4 1.1	4 0.9	9 4.8	6 1.9	3 1.7	27 1.6
시간적여유	2 0.9	14 3.9	19 4.3	9 4.8	14 4.4	11 6.3	69 4.1
사회명성	4 1.8	12 3.3	8 1.8	2 1.1	9 2.9	5 2.9	40 2.4
사회봉사	24 11.0	78 21.6	105 23.7	39 20.7	47 14.9	41 23.4	334 19.6

## IV. 結 論

### 1. 要 約

本 調 査 研 究 은 1983 學 年 度 에 入 學 한 濟 州 大 學 校 新 入 生 全 員 인 1,885 名 을 對 象 으 로 實 態 調 査 를 하 것 인 바, 本 論 에 서 밝 혀 진 資 料 處 理 의 結 果 중 에 서 두 드 러 진 것 만 을 묶 어 簡 略 히 整 理 하 면 다 음 과 같 다.

1) 新 入 生 1,885 名 중 남 학생은 64 % (1,210 명) 이 며, 여 학생은 36 % (675 명) 이 고 新 入 生 의 99.4 % 가 만 18, 19, 20 세 층 에 속 하고 있 다. 또 道 內 高 等 學 校 出 身 이 新 入 生 중 에 서 97 % 를 차지하고 있다.

2) 入 學 後 自 宅 에 서 居 住 할 학 생 이 54.1 % 로 가 장 많 고 다 음 이 자 취 할 학 생 (30.7 %), 친척 집에서 居 住 할 학 생 (7.8 %), 하숙 할 학 생 (5.8 %) 의 順 이 며 宗 教 는 無 宗 教 者 가 41.9 % 가 장 많 고 다 음 이 불 교 (31.9 %), 기 독 교 (15.2 %), 천 주 교 (8.2 %), 기 타 (1.9 %) 의 順 으 로 나 타 났 다.

3) 入 學 前 적 어 도 1 년 이 상 再 修 한 학 생 이 전 체 新 入 生 중 에 서 20.8 % 를 차지하고 있으며 新 入 生 의 13.6 % 정 도 가 병 역 을 필 했 거 나 면 제 된 것 으 로 나 타 났 다.

4) 新 入 生 의 87.5 % 가 父 母 모 두 生 存 해 있 는 것 으 로 나 타 났 으 며 父 母 모 두 사 망 은 1.4 % 로 나 타 났 다. 新 入 生 父 의 教 育 程 度 는 63.4 % 가 中 高 等 學 校 教 育 을 받 은 것 으 로 나 타 났 으 며 母 의 경 우 는 父 보 다 낮 은 47.4 % 정 도 가 中 高 等 學 校 教 育 을 받 은 것 으 로 나 타 났 다.

5) 新 入 生 家 族 의 住 所 地 는 대 부 분 道 內 이 며 道 外 는 약 3.2 % 에 불 과 하 고 新 入 生 부 모 의 85.0 % 가 자 기 집 을 소 유 하고 있 다. 新 入 生 保 護 者 의 직 업 을 살 펴 보 면 新 入 生 保 護 者 의 52.7 % 가 농 업 에 종 사 하고 있 으 며 다 음 이 상 업 (13.4 %), 공 무 원 (6.9 %), 교 사 (4.5 %) 의 順 으 로 나 타 났 다.

6) 新 入 生 들 이 學 費 調 達 方 法 은 75.0 % 가 父 母 의 도 움 을 받 고 있 으 나 學 費 餘 裕 는 다 소 곤 란 하 거 나 或 은 아 주 곤 란 하 다 가 약 41.2 % 나 되 고 있 다.

7) 新入生들이 本校 入學의 主된 動機는 입학가능성(43.3%)과 등록금이 싸다(36.4%)이며 專攻選擇의 動機는 직업전망(47.7%)과 학문적 취미(34.3%)를 고려해서 대부분 專攻을 選擇했다 라고 應答했으며 專攻選擇에 影響을 준 사람으로는 本人이 57.5%이고 다음이 부·모 또는 형제의 影響이 14.0%, 고교담임이 12.9%의 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8) 專攻에 對한 滿足度는 아주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이 67.8%이고 그저 그렇다가 26.7% 아주 불만이거나 다소 불만이 5.3%로 나타났으며 專攻學科에 對한 知識程度는 新入生 중에서 44.4%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 상태에서 專攻學科를 選擇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新入生들이 對人關係의 圓滿度를 보면 新入生中 80.8%가 對人關係에 있어서 아주 원만하거나 별 곤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新入生の 83.9%가 적어도 친구 몇몇은 있는 것으로 應答했다. 願하는 親舊의 類型은 마음의 친구가 62.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생관을 같이 할 친구(18.2%), 학문적인 친구(14.6%)의 順으로 應答했다.

10) 新入生들이 현재 當面하고 있는 큰 문제는 ① 학업문제(28.9%) ② 학자금문제(20.7%) ③ 장래진로문제(16.1%) ④ 인간관계(8.8%) ⑤ 성격문제(8.1%) ⑥ 건강문제(6.6%) ⑦ 가정 및 가족문제(4.7%) ⑧ 이성문제(1.5%)의 順이며 앞으로 大學生活을 하면서 어려운일에 직면했을때의 相談者는 부모 또는 형제가 39.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친구(28.0%) 교수(15.0%), 선배(12.3%)의 順으로 나타났다.

11) 新入生으로서 알고 싶은 事項은 졸업후의 진로가 52.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장학금제도(17.3%), 과외활동(11.2%) 등의 順이며 大學生活의 注力方向은 학문적 지식의 습득(41.8%), 폭넓은 교양(27.9%), 직업인으로서의 준비(23.8%), 정서적 성숙(4.9%) 등의 順이다. 또한 新入生の 絶대다수인 95.0%가 課外活動에 參加하길 바라고 있으며 많은 新入生들이 教授의 役割을 學生들과의 人間的인 理解와 對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應答했다.

12) 新入生들이 보는 大學生의 使命은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가 32.7%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27.3%), 학문연마(25.4%), 시민의식의 개발(12.8%)의 順이며, 現大學生에 對한 批判으로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경향이 43.7%, 무절제한 생활(22.3%), 학업을 등한시 하는 경향(20.4%), 정의감부족(10.2%), 기타(3.4%)의 順으로 나타났다.

13) 卒業後의 計劃으로는 취업이 46.8%로 가장 많고 다음이 大學院進學(32.6%), 결정못했다(11.9%) 등의 順이며 장차 大學을 卒業한 後 職業을 選擇하게 될때의 기준으로는 전공분야(63.9%), 사회봉사(19.6%), 보수 조건(7.6%), 시간적 여유(4.1%) 등의 順으로 應答했다.

## 2. 提 言

밝혀진 調査結果에 기초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학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여학생을 위한 시설 확충 및 복지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2) 新入生保護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農業에 종사하고 있으며 新入生 중에서 41.2%가 學費調達が 다소 곤란하거나 아주 곤란한 형편이므로 副識알선 확대와 獎學金制度에 對한 研究가 있어야 하겠다.

(3) 專攻學科에 대한 事前 知識이 없이 入學을 한 學生이 무려 44.4%나 되고 있어 高等學校에서 進學指導上 이에 대한 對策이 있어야 하겠다.

(4) 新入生들이 獎學金制度, 卒業後의 進路, 課外活動등에 관심이 많은 점을 감안 이에 대한 充分한 Orientation이 있어야 하겠다.

(5) 新入生の 95.0%가 課外活動에 參加하겠다는 점을 감안 大學當局에서는 校內싸클運營에 대한 보다 철저한 配慮가 있어야 하겠다.

(6) 教授의 役割에 대한 新入生들이 評價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新入生들이 人間的 理解와 對話를 요구하고 있어 學生과 教授간에 人間的 理解와 對話의 通路를 증진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新入生들이 就業問題와 大學院進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 就業擴大를 위한 學校當局의 配慮와 進學에 따른 指導가 더욱 精實하다고 본다.